

노량진(오전)	6시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서울 교회	02)533-9191
주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주일에배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복음의 황금어장

나는 요즘 마음이 분주하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에 전격적으로 복음을 전할 마음에 기도는 물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드네프로에 있는 슬라바 목사와 매일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그 기반을 다지고 있다.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법, 복음은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자를 위한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었다. 그것이 어디 외적인 것뿐이라.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마음도 폐허가 되었을 것이다. 그곳에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지원 이상의 것, 바로 복음이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지금 갈급하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부족 사태를 낳은 것은 식료품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란 것이다. 사람들은 문이 열린 교회로 모여 기도하고 찬양을 한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사모한다. 예전에 없던 풍경이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우크라이나는 한국이 6·25전쟁 후 그랬던 것처럼 복음의 황금어장이 될 것이다. 복음은 메말라 짝짝 갈라진 땅에 단비 같은 것, 전쟁으로 지친 우리 민족 심령에 복음은 마른 땅에 내린 단비가 되어 심령 깊숙이 스며들었다. 1965년에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라는 표어를 내걸 정도로 전국을 복음화하는 열렬한 복음화운동이 전개되었다. 세계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군 동력은 기독교다. 복음은 살리는 영으로, 복음의 씨가 뿌려진 곳에는 늘 성장과 발전, 희망이 움튼다. 우크라이나에도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달 이 날에 유대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에9:22). 이날이 부림절이다. 유대인들을 멸절하려던 하만의 계획이 드러나 하만이 처형을 당하고 풍전등화였던 유대인들에게 광명이 찾아온 날이다. 나는 우크라이나에도 분명히 이 부림절이 곧 찾아오리라 생각한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 믿는다. 그날에 나는 달려갈 것이다. 기쁜 소식, 복음을 들고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지난 주일, 우리가 예배 처소로 사용하는 88체육관이 성도들로 가득 찬 광경을 목격하며 마치 꿈을 꾸는 기분이었다. 도대체 얼마 만인가? 그동안 코로나 이전의 예배 영상을 보며 과연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하며 늘 그리워했던 장면이 재현되는 실상을 보았기 때문이다. 모두가 기쁨으로 충만한 모습이었다. 이제 다시는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편 지금 기도원에서는 오는 5월 9일부터

이 어디 있을까. 다 우리 아버지 일기에 최선을 다해야 마땅하다. 이런 때에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던 말씀이 생각난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면 꼭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뉩니다. 첫째는 적극적으로 내 일처럼 관심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는 휘방자입니다. 시기 질투하며 방해하고 탄지를 거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사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는 방관자들입니다. '어디 그런다

을 휘방했던 자들이 어떤 보응을 받았나요? 에스더의 대적 하만이나 다윗을 죽이려 골몰했던 사울, 느헤미야의 예루살렘성 재건을 휘방했던 산발랏과 도비야, 더 나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 피를 자신들에게 돌리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내린 재앙의 보응을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끝으로 방관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방관하십니다. 그들이 위기에 처해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신다고 잠언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재



터 12일까지 진행될 기도원 춘계산상집회 준비로 한창 바쁘다. 2019년 가을 집회 이후로 코로나로 인해 대규모 집회가 없었던 관계로 여기저기 손보며 살펴봐야 할 곳도 많고, 오랫동안 기도원 성산을 그리워하던 성도들이 몰려올 것을 대비하여 준비할 것도 많기 때문이다. 목사님은 집회 선포 이후로 매주 기도원에 상주하시며 집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다. 전국 잔치를 배설했으니 하객들이 몰려와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잔치 주최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기도원 식구들은 시설 및 안전 관리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고, 교단의 교역자 및 직분자들은 집회를 적극 홍보하여 2년 반 만에 열리는 기도원 산상집회가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여기에 무슨 네 일, 내 일

고 되겠어?', '그러면 안 될 거 없게?', '어디 잘 되나 두고 보자.' 이라는 사람들입니다. 휘방자들은 눈에 딱 보이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방관자들은 눈에 잘 띄이지도 않으면서 조직에 부정적인 기류를 불어넣기에 가장 위험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두고 단언컨대,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관심을 갖고 내 일처럼 일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입하여 도와주십니다.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며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휘방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개입하시어 휘방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양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잠1:26).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을 들으신 대로 쏟아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민14:28).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령되이 행하기 때문입니다. 천국 잔치가 배설되었으니 내 아버지의 일임을 자각하고, '너도 가자, 나도 가자' 하며 주위를 둘러보고, 집회를 적극 홍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춘계산상집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이초석 목사 춘계산상집회

장소: 5월 9일(월)~12일(목) 장소: 장성예루살렘기도원

문의: 02. 533. 9191 호텔예약: 5월 3일(화) 오전 10시 (www.jcc.tv 인터넷예약)



상록수는 사시사철 푸르지요? 은행나무는 노랗고요.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만물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도 다 쓰임에 맞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흠을 빚어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시거든요(사64:8).

목회 전에 이천으로 그릇을 만들러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흠을 떼기 전에 꼭 생각하는 것이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정하시고서 그 쓰임에 맞게 크기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실 때 '어디에 쓸까?' 곰곰이 생각하시고 쓰임에 맞게 우리를 빚으셨답니다. 누구는 신경 써서 만들고, 누구는 대충 만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석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잠16:4).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남의 잔디가 푸르러 보인다

그런데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압니까? 바로 남의 것을 썰내고 탐내는 것에서부터입니다. 상록수는 사시사철 푸르면 되는데, 그게 멋있는 건데 괜히 노란 은행나무를 썰내서 '나도 노랗게 되리라' 하고 노래지면 주인은 노르끼리한 상록수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잘라버립니다. 아침마다 닭이 지붕에 올라가 주인의 아침을 깨우니까 개도 '나도 그래 보리라' 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툭툭한 소리로 울다가 보신탄 신세가 되어 버린 이야기도 기억하시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달란트요, 재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걸 하면 됩니다. 그걸 노력해서 더 잘하면 인생이 재미있고, 신나고, 성과도 크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것을 시원찮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실 때는 신경을 안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기장이에게 힐문하고 불평하지요.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냐? 왜 나에게 재능을 안 줬냐?, 저 사람은 저렇게 멋진 걸 주셨는데, 난 겨우 이거냐?' 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렘9:20).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의 오케스트라라고 생각해보십시오. 다 바이올리니스트면 그게 오케스트라입니까? 다 첼로만 하면요? 아닙니다. 플루트도 있고, 트럼펫도 있는 겁니다. '왜 하필 나는 심벌즈냐고요?'

하시든 분들, 심벌즈가 연주 중 한 번 밖에 안쳐도 그걸 쳐줘야 음악이 클라이맥스에 도달하는 것 아닙니까? 심벌즈 친다고 오케스트라 단원이 아닙니까? 똑같은 단원인 겁니다. 제때 심벌즈 한 번 치면 연주를 같이한 것입니다. 다 포클레인이면 작은 화단은 뭐로 가깝니까? 발고랑은 뭐로 팝니까?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화를 당한 것이 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저 사람은 다섯 달란트가 있으니 뭘 해도 되지. 저 사람은 그래도 두 달란트를 받았으니 가능성이 있지. 나는 겨우 한 달란트야.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어?' 한 겁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나 . 그래서 땅에 묻어 둔 겁니다. 주인이 그의 항의가 합당하다고 했습니까? No! 화를 버럭 냈고, 어둠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왜요? 한 달란트라도 충분히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화를 낸 것은 다섯 달란트를 못 남겨서가 아니라 불평만 하고 자기 것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고전12:29~30)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가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교사가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아니, 사도는 못할 일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꽃꽂이를 하는 일, 헌금위원, 안내위원, 성가대 등등... 그래야 교회가 조화롭게 돌아갑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님보다 몇 명 안 되는 작은 시골교회 목사님이 더 상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저를 운전해주는 두 집사가 저와

같은 상을 받을 수 있다가요. 여러분, 핸들과 타이어, 백미러..., 그 기능이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다 동차입니다.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눈과 코, 귀, 입, 팔, 다리, 모두 생김새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고, 그것이 다 나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대통령일 수 없고, 다 사장일 수 없고, 다 목사일 수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 있는가 하면 기술 습득에 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저렇게 생긴 사

람이 있습니다. 연장에도 기능이 다르듯, 달란트가 각각 다른 것뿐이

지 귀하지 않은 사람도, 귀하지 않은 달란트도 없습니다. 춘향이로 태어나지, 억지 춘향은 힘든 겁니다.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억지로 애들 의사 만들려고 하고, 억지로 검사 만들려고 하면 그 자식 인생 죽이는 겁니다. 평양감사도 저가 싫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적성에 맞는 걸 시켜야지요. 이 비유 한 번 들어보실래요? 사사기 9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왕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먼저 감람나무가 천거되었으나 그는 거절했습니다. 이유인즉 기름 짜는 일이 자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나무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이를 고사했고, 포도나무도 자기 일이 있기에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면 요동한다고 했습니다. 곧 휘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것이 뭔지도 모르는 가시나무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제대로 섰을까요? 자기 것이 아닌데요.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의 겸손함

과 아름다움, 그리고 지혜를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잘 발전시켜 나갔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는 다윗을 바라봤습니다. 다윗의 용맹함을 자신과 견주었고, 다윗의 것을 탐했습니다. 탐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라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고로 지나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법(약1:15),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토기를 아껴보지 않고 망치로 깨버리듯,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울을 깨트리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이 토기장이의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렘18:6).

여러분, 70이 넘게 살아봐도 감나무가 사과나무 되는 것 못 봤습니다. 남자가 여자 안 됩니다. 토기장이인 하나님이 애초에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괜히 뱀새가 황새 쫓아가려고 하니까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이고, 송충이는 갈잎을 먹으니까 배탈이 나는 겁니다. 뱀새로 태어났으면 뱀새로 멋지게 살면 됩니다. 누가 황새가 뱀새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할디까? 큰 그릇이 늘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금 그릇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비록 종지라도 내 것에 만족하고 깨끗할 때 매일 주인 밥상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내 것을 찾아야 신바람 난다

제아무리 명품신발이라도 안 맞으면 발이 까지고 온몸이 아픕니다. 값싼 운동화라도 내 발에 맞아야 편하지요. 남이 볼 때 좀 하찮은 일 같아도 내가 편하고 좋으면 그것이 명품이요, 그것이 행복한 겁니다. 당신의 인생이 고름이 나고 물집이 잡혀 아픈 것은 당신에게 맞지 않는 길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보물찾기입니다. 이 보물찾기 중에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내 달란트, 내 적성입니다. 그걸 찾아 개발하고 집중할 때 그 분야에 최고가 되고,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태어나는 세상이 있다고 해도 나는 목사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이 제게 꼭 맞기 때문입니다. 같은 씨를 심어도 토양이 맞으면 훨씬 잘 자라는 법이니까요.

당신의 달란트를 찾으세요. 없다고요? 굴뚝이도 구르는 재주를 주셨는데 왜 없겠습니까. 찾으면 찾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 개발하면 당신 삶이 향상되고, 행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오늘의 메시지 ::

깨어 근신하라 (살전5:6)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물질계와 장차 나타날 영계를 지으셨다. 인간은 동시에 두 세계 안에서 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둘의 세계를 조화시키며 살아야 한다. 보이는 세계만을 추구하며 살아서도 안 되고, 반대로 물질계를 도외시키고 영계에만 치우쳐 살아도 안 된다. 이 둘은 상호 의존적인 세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일을 안 할 수 없고 영혼이 잘되는 영원한 축복과 면류관을 위해 주님 일 안 할 수 없으니, 시간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또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양보해야 하고 주님이 변호해주시 때까지는 누명을 쓰더라도 자기변명은 말아야 하고... 더욱이 영적인 방해까지 치열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세상일이 잘 안 되고 망해갈 때,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 모든 순교한 사도와 성도들이 그러했지 않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히 여기사, 먼저 주님 일에 헌신한 우리에게 뜻밖에도 세상일이 형통하게 해주신다면, 그때는 더욱 감사할 일이며 더욱 담대하게 헌신을 가속할 일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빌1:29) 예수께서 세상과 구별되게 우리를 택하셔서 고난의 일을 맡기셨고, 성령께서도 우리가 원치 않을지라도 고난의 길로 인도

하려 하시며, 결국 우리 자신이 기꺼이 그 고난의 삶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다.

어차피 우리 일생은 금방 끝날 것이다. 그 후에는 주님 앞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그 일생을 능력 없이 보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낭비하는 것이다. 하루하루 이빨이 삭아가고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어두워가고 머리가 희어져 가고 무릎에 기운이 빠져가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판에, 무기력하고 영감 없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가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인생의 날과 때를 알지 못하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될지도 모르면서도 오늘이 있으니 내일이 있고, 또 그 내일이 무한정 열려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인간은 자기 생명의 날을 임의로 주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을 최후의 날로 사는 사람이 현명한 자이다. 우리에게 가장 급한 것은 자기 영혼의 문제이다. 육신이 있는 동안 영혼이 갈 곳을 마련하고 영광스런 면류관을 결정해놓지 않으면, 육신이 떠난 후에는 면류관을 받을 수도 없고 그것을 위해 수고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우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면류관을 쓰고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속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을 예비해야만 한다. 이것이 이 땅에서 성도가 준비해야 할 삶이다.

신기류 목사
abba7777@naver.com

:: 깊은 곳에서의 울림 ::

나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두고 신년에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식 첫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진실아, 너는 왜 나를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냐.' 그 순간 세상의 지식과 사람의 말에 흔들려 믿음을 무너뜨렸던 나의 모습이 떠올랐고 죄책감이 휩싸였습니다. '나는 네가 믿음의 주인공이 되길 원한다.' 다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과소평가했던 지난날을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저는 기도 가운데 떠오르는 다섯 개의 기도 제목을 노트에 적었고, 다음날 아침부터 순차적으로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빌려주고 받지 못했던 돈이 생각나서 기도하였더니 통장에 돈이 들어온 사건과 원인 모를 생리불순으로 병원까지 갔던 제가 금식 기도 후에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된 사건은 평생에 잊지 못할 응답들입니다.

하루는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믿음으로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을 먹는 즉시 통증이 가라앉았던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거울을 보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서너 번을 쫓았을까요? 머리를 짓누르던 통증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는 밤새 허탕 친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버리고 예수께 순종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편협한 지식과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며, 믿음을 보여드릴 때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건 되고, 이건 안 돼'라며 스스로 한계를 긋고 계시는지요? 총회장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해드리는데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일평생 외쳐 오신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의 견고한 믿음을 통해 나타난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을 지금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목사님의 믿음을 본받아 기도합시다!

김진실 사모

은혜의 고백, 감사!

멕시코의 한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함께 솟아나는 곳이 있다. 동네 여인들은 빨랫감을 가지고 와서 온천에서는 빨래를 삶고 냉천에서는 깨끗이 행구어 집으로 가져가곤 했다. 그 모습을 본 관광객이 안내원에게 말했다. "여기 사람들은 찬물과 더운물을 마음껏 쓸 수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네요." 그러자 안내원은 말했다. "천만에요! 이 마을 사람들은 찬물과 더운물은 주셨으나 빨랫비누를 주시지 않았다고 불평합니다."

은혜를 모르면 감사는커녕 불평만 쏟아내게 되어있다. 목사님은 늘 교훈하신다. "흐르는 물 한 컵을 떠줘도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의 불행은 바로 그 은혜를 잊은 데에 있다. 광야 생활 내내 내리신 만나, 고기, 반석의 물 등 하나님의 은혜는 간데없고, 감사하지 못하며 지난날 먹고 누렸던 것만 생각하며 아무것도 없다

고 불만, 불평을 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라며 감사할 때 하나님은 화가 복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구름 너머에 찬란한 태양이 있음에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구름만 보고 있다면 그것은 불행이다. 비록 현실은 구름이 끼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태양을 바라보며 감사하자. 붉게 물든 석양을 보면서 동시에 내일의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자.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히11:1).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좌절치 말고 바라는 믿음에 따라 감사하자.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살전5:18).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 내가 매일 기쁘게 ::

하나님의 인도하심

졸업 연한을 1년 앞두고 한창 논문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4월 중에는 교수님을 찾아뵙고 논문 주제를 확정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람 일은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어느 날, 일어났더니 허리가 너무 아팠다. 앉을 수도, 일어날 수도 없을 정도로 아파서 혼미한 정신으로 병원을 찾았다. 그 자리에서 디스크 판정을 받았고, 신경 주사를 맞았다. 그렇게 병원 두 곳을 더 돌았고, 지금은 치료를 받으며 요양 중이다. 계획했던 논문 작업은 모두 중단되었다. 가을학기 졸업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이 너무 속상하고 답답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한 달이 다 되어간다. 이제 처음에 느꼈던 분노와 억울함은 가라앉았고,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나를 위로한 것은 이 말씀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16:9).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임을 되새기고 또 되새겼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허리는 여

전히 아프고, 30분만 앉아있어도 통증이 심하다. 다시 논문을 쓰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는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제야 깨닫는다. 20분 내외의 산책을 하면서 두 발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식탁에 앉아 간신히 밥을 먹고, 누워있어도 소화가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지난 시간, 내 삶을 계획하고 인도해주신 이는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을 나에게 허락해주셨다.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어려운 상황과 그 상황보다 더 좋은 것을 베풀어주셨던 하나님이셨기에, 감히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비록 이번 학기의 졸업은 물거품이 되었지만, 내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시각으로 이 상황을 평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인도하심을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크리스천이 되기를 다시 또 기도한다.

전훈지 집사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



1999년 5월 8일, 서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던 시숙님이 엘리베이터 사고로 소천하시면서 저흰 혼자되신 형님과 돌이 안된 조카딸, 12살 된 조카딸의 가족이 되기 위해 우리가 살던 곳에 세를 주고 인천에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올라오고 얼마 후 임신한 했는데,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학생이었기에 태어나는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하던 중 형님께서 어린 조카딸을 저에게 맡기시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21일 작정기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조카딸을 데리고 성수동 기도처로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건강하고 지혜롭고 총명하며 찬양을 잘하는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다들 밀레니엄 베이비라고 1월 1일에 낳기를 소원했지만, 저는 출산예정일이 1월 23일이었기에 이왕이면 1월 7일, 하나님의 완전하신 날에 태어나게 해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조목조목 기도했습니다. 진통이 옴과 동시에 정상 분만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이가 너무 크면 출산 때 힘들다 하니 2.7~3kg 안에서 낳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며, 출산 후 들어가는 유아용품과 모든 비용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비만이니 임신으로 몸무게가 많이 늘어서 임신중독증 걸릴까 두려우니 10kg 이상은 더 늘지 않게 해주시되 아이가 충

분히 자랄 수 있는 몸무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중 형님택을 나와야 하는 일이 생겼는데 임춘산 목사님의 누님께서 본인의 단칸방을 저희에게 주시며 본인은 다니는 식당에 있는 방에서 기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21일 기도를 40일 작정기도로 바꾸고 천호동 기도처에서 기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천호동 기도처에 새로 오신 엄밀알 전도사님께서 저를 보고는 '나는 임신했을 때 촉진제 맞고 3시간 만에 낳았다'고 하시길래 '하나님, 저두요. 저도 3시간 만에 낳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추가하며 40일 작정 기도를 마쳤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땐 응답을 바라보고 있어서 마음이 평안했는데, 시간이 끝나갈수록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함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하는 믿음 없는 마음도 들어왔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이어갔더니 기도 끝나기 며칠 전부터는 평강과 평안의 말씀과 찬양을 주셨습니다.

출산을 위해 지방에 내려왔을 때 동생에게 "23일이 예정이지만 난 7일 날 낳으면 좋겠다고 기도드렸다."고 했더니, 6일 날 저녁에 동생이 저에게 "내일 출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고 말하는데 저도 사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출산의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기에 내일 낳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월 7일 아침 깨어보니 양수가 터져있었고 병원에 갔더니 출산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촉진제를 놔주는데 진통이 오기 시작한 시간이 10시 30분. 쉽 없이 오는 진통 속에 오후 1시 30분이 되어서 아이를 출산했고, 2.76kg의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막달까지 몸무게는 13~4kg만 늘어나서 임신중독증 없이 무사히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누군가 말하길 내가 비만이라 임신이 힘들 줄 알았다고 하는 말에 임신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때마침 유아용품점을 동생이 오픈하면서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이가 크기까지

모두 다 대주었고, 그 외에 모든 필요한 것들은 주위 분들의 축하 속에 넘치게 들어와서 아이를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세밀히 기도한 것 모두 하나님이 이뤄 주셨습니다. 아이가 커서 우연히 기도 노트를 보고 "엄마! 내가 이렇게 태어났어?" 하고 물어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어느 날 마음이 힘들어서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교회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 아이가 사무엘 같은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마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다시 교회에 갔습니다. 다시금 "저 아이가 사무엘 같은 아들이다." 하시면서 마음속에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을 알고 감사했습니다. 아이가 네 살 되었을 즈음, 어느 주일날 아침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 준비하는 제 뒤에서 아이가 혼자서 "응, 응." 하는 것입니다. "누구랑 얘기해?" 했더니 "천사랑 얘기해." 하며 살며시 다가와서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엄마! 천사가 엄마를 사랑한다." 하고 같이 있는 저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천사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너는 천사가 보이니?" 했더니 "응, 엄마는 안 보여?" 하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도 멈춰서서 귀에 손을 대고 가만히 귀 기울이는 아들을 보며 "왜?" 하면 "엄마는 저 천사들의 나팔소리가 안 들려? 찬양 소리가 안 들려?" 하는데 같이 길을 걸어가는 제 눈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기도를 같이 다니고 하다 보니 이전 믿음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서 기도를 서로 얘기하며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아서 기도를 드렸더니 제 기도를 들으사 귀한 선물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금까지 사고는 여러 번 있었지만 큰일 없이 무탈하게 잘 자라게 해주시고 군복무까지 무사히 끝나고 집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박매숙 집사

:: 프롬 인터뷰::

최고의 영성 충전소

스마트폰 쓰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는 요즘이다. 그런 스마트폰 유저들이 꼭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다. 다음 날 스마트폰 사용을 위해 잘 때 충전을 하는 일이다. 쓰면 쓸수록 배터리 잔량이 낮아지고 방전되니, 충전기에 꽂아 놓고 밤새 길게 충전해야 다음 날 온종일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사용할수록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도 세상에서 싸우며 조금씩 방전된다.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때론 성령 충만도 떨어지고 감사를 잃어가기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방전되고 낮아진 영성 배터리를 다시금 충만하게 채울 필요가 있다. 언제든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말이다. 그럼 우리의 영성을 가장 잘 충전하는 곳은 어디일까? 바로 교회이고, 특별히 예배의 시간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 예배 자리에 앉는 순간 내 영성을 채워주는 충전소의 충전 잭이 나에게 연결된다고 말이다. 따라서 예배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으면, 때론 잠시 말씀에 집중 못하고 설령 깜박 졸 때가 있어도 여전히 충전 잭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 순간에도 내 영성은 조금씩 채워져 간다.

이렇게 주일날 채워진 영성이 조금씩 떨어질 만하면 수요일예배가 있어서 다시 채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천국에 갈 때까지 성령 충만하게 살려면, 좋건 싫건 내 영성을 다시 채우기 위해 충전 잭을 자주 연결해야만 한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사수하려 애쓰는 것이다. 물론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며 스스로 자가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예배만큼 더 강력하고 확실한 것은 없다. 육을 채우고 혼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을 먼저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만큼, 최고의 영성 충전소인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사모하고 사수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

장명훈 집사

늑대의 오명

늑대는 자연계에서 몇 안 되는 단혼제를 지키는 독특한 동물입니다. 애처가라고 할 정도로 수컷 늑대는 암컷이 죽기 전까지 절대 바람을 피우지 않으며 오직 일부 일처제만 고수합니다.

수컷 늑대는 평생 한 마리만의 암컷만을 사랑하고 암컷이 먼저 죽으면, 가장 높은 곳에서 울어대며 슬픔을 고하다가 결국 통곡까지 한다고 합니다.

또 수컷 늑대는 자신의 암컷과 새끼를 위해서 다른 천적들과 싸우기도 하며, 암컷이 죽어서 간혹 재혼한 수컷 늑대라도 과거의 새끼들까지도 책임지고 키운다고 합니다.

모든 늑대가 꼭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늑대에 대한 인식과 달리 대부분의 늑대는 그들은 가정에 충실하고, 부부애는 독특할 정도로 애뜻합니다.

우리는 음흉한 남자를 가리켜 흔히 '늑대 같다'고 표현합니다. 잘못된 인식,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는 늑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빨간 안경을 쓰고 있으면 온 세상이 빨강계 보입니다. 하늘도 빨강고, 나무도 빨강고, 사람들도 다 빨강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편견(偏見)입니다. 이 편견을 이겨낼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편견은

편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제대로 세상을 보려면, 제대로 사람을 보려면 투명한 안경을 끼야 합니다.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투명한 안경을 끼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눅6:41-42).

